

‘들불야학 아파트’를 기억하라

윤상원 열사 등 새날 꿈꾸던 광천시민아파트 ... 재개발 철거 앞두고 예술인들 내일 게릴라 콘서트



1970년 7월 9일 사용승인이 난 광주 최초의 연립 아파트 광천시민아파트.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천시민아파트는 1970년 7월 9일 사용승인이 난 광주 최초의 연립 아파트다.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알려진 윤상원 열사가 1978년 입주하면서 들불야학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다. 윤상원 열사를 비롯해 박기순·박용준·박관현·신영일 열사 등이 이곳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노동자들과 공부하며 ‘새날’을 꿈꿨다. 들불야학(광주전남 최초의 노동야학)은 그 아파트에서 제작한 ‘투사회보’를 들고 광주항쟁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학살과 맞섰다.

오는 21일 오후 1시 대규모의 재개발로 철거를 앞둔 광천시민아파트에서 광주지역 예술가들의 게릴라 공연이 열린다.

정찬영이 색소폰연주로 ‘오월의 노래’를 선보이며 릴레이 연주와 퍼포먼스가 시작된다.

이어 화가 주홍(사진)이 드로잉 퍼포먼스 ‘당신은 별입니다’를 선보인다. 주 씨가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동안 작곡가 승지나가 ‘누나야 소녀야’를 비롯해 즉흥 피아노 연주를 할 예정이다.

정찬영 색소폰 ‘오월의 노래’

주홍·주라영 작가 퍼포먼스

승지나 피아노·아코디언 연주

명인 국근섭 감성무로 막 내려

또 조각가 주라영이 ‘순간-사라짐’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며 승지나의 ‘님을 위한 행진곡’ 아코디언 연주, 은혜인의 플루트연주 등이 이어진다.

공연은 명인 국근섭씨의 감성무 ‘꽃아꽃아’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화가 주홍은 “들불야학의 근거지였던 광천시민아파트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연을 하기로 나섰다”며 “계획된 공연이 아니라 소규모, 게릴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은 아직도 복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계엄군의 총탄 자국,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 공간은 아예 철거됐죠. 옛 전남도청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광천시민아파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안타깝게 뿐입니다.”

화가 주홍은 또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정신 오마주’를 주제로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18m 대형 캔버스에 시민들과 함께 ‘얼굴’을 그린 후 가위로 오려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문의 010-6791-805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주홍 등 예술가들이 최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인들과 영화 보고 이야기 하고

광주독립영화관 오늘 ‘너와 극장’

지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윤수안)은 개관 100일을 맞아 영화관람 후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시간으로 꾸며지는 ‘너와 극장’을 시작한다.

‘너와 극장’은 한국독립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극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차례씩 열릴 예정이며 첫 시작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영화인들이 나서서 진행한다.

첫 시간은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최성욱 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가 영화 ‘너와 극장’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7일 오후 5시에는 윤수안 광주독립영화관 관장이 ‘소공녀’를 지인들과 함께 관람한다. 윤 관장은 현재 ‘마을영화’를 함께 찍고 있는



중흥2동 마을 주민들, 출연 배우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영화를 볼 예정이다.

8월 둘째 주에는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광주여성영화제 회원들과 함께 영화 ‘거룩한 분노’를 관람할 예정이다.

윤수안 관장은 “광주독립영화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너와 극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너와 극장’에 참여할 시민은 광주독립영화관에 문의(062-222-1895)하면 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운영요원 교육생 모집

8월 3일까지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함께 할 운영요원(큐레이터/도어 어시스턴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사의 기획, 운영에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참여시켜 잠재적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프로그램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 교육 장소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아카이브실이다. 참가자 모집은 8월 3일까지이며, 참여방법은 미디어아트창의 도시사업단 창조협력팀(aplusrt@naver.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총5회로 구성됐다. 1회차(8월 10일)에는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원준 감독이 오리엔테이션 및 미디어아트 기본개념에 대해 강의한다.

2회차(11일)에는 토 말미술관 신보슬 큐레이터가 미디어아트 전시 및 페스티벌 실무에 대해, 3회차(24일)에는 더스트림 정세라 대표가 미디어아트의 갈래 및 국내외 현황에 대해 강의한다.

4회차(25일)와 5회차(31일)에는 미디어아트 박상화 작가가 광주의 미디어아트의 흐름과 현황을, 아시아문화원 창작작센터 레이던 시지원팀 최진이 팀장이 ACC 진행 프로그램 및 전시 현황을 이야기한다.

문의 062-670-79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뽑아주세요

인터넷서점 예스24, 8월 15일까지 온라인 투표

인터넷서점 예스24는 8월 15일까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올해로 14년 째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를 독자들이 직접 뽑는 행사다. 올해는 2008년 이후 중단됐거나 첫 소설집, 장편소설 혹은 시집을 출간한 작가들 가운데 문학 출판사 20곳의 편집자 및 예스24 MD의 추천을 받아 후보 작가군을 선별했다. 이들 작가 중 소설과 시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이 최종 선정된다.

소설가 후보로는 강화길, 김금희, 김동식, 김봉곤, 김성중, 김학찬, 도선우, 박민정, 박솔피, 배수진, 손보미, 손원평, 송시우, 오한기,

임현, 장강명, 정세랑, 정영수, 정지돈, 천희란, 최민석, 최은미, 최은영, 최정화 작가 등이다. 시인 후보로는 강지혜, 김소형, 김현, 문보영, 박준, 배수연, 백은선, 서운후, 신철규, 안미린, 안미옥, 양안다, 안희연, 유계영, 유진목, 유희경, 임정섭, 임솔아, 임승유, 장수진, 최지인, 허은실, 황유원, 황인찬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을 뽑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독자들에게는 ‘YES 상품권’ 1천원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노트북(1명)과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엑스퍼트(2명), 젊은 작가 소설 5권 세트(10명)를 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